

## 수사구조이론(RST)을 활용한 의미 구성 능력 진단 도구의 형식 탐색

박재현 상명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제1저자)

박종훈 부산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윤신원 가톨릭대학교 글로컬문화스토리텔링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선영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정민주 한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교신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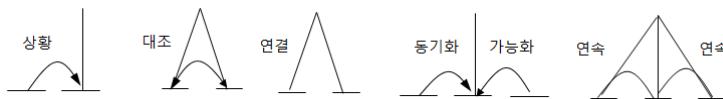
- \* ①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A2A03048146).

- I. 서론
- II. 선행 연구 검토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V. 논의 및 결론

##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수사구조이론(RST: Rhetorical Structure Theory)의 활용 가능성을 제안하고, 이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텍스트 의미 구성 능력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의 형식을 탐색하는 것이다. 즉, 본 연구는 수사구조이론을 활용한 진단 도구 개발의 일환으로서 학습자의 의미 구성 능력을 진단하는 도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탐색하여 최적의 대안을 찾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수사구조이론(이하 RST)이란 필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핵(nucleus)과 위성(satellite)의 의미관계(relations)를 통해 전체 텍스트의 구조를 분석하는 이론이다(Mann & Thompson, 1988). RST에서 의미관계란 핵과 위성, 핵과 핵의 분석 단위에 적용되는 의미 기능을 표시한 것으로 상황, 대조, 연결, 동기화, 가능화, 연속 등 24개가 있다. RST는 이러한 의미관계를 도식으로 나타낸다. 언어 분석 단위를 수평선으로 처리하고, 수평선 위의 수직선이 핵이며, 수직선이 없는 수평선은 위성이 된다. 곡선 화살표로는 위성이 가리키는 핵을 나타내며, 그 위에 분석 단위 사이의 의미관계를 명시한다. 이러한 RST 도식의 다섯 유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RST 도식 유형(Mann & Thompson, 1988: 246-268)

RST는 이러한 도식을 사용하여 텍스트 구조를 직관적으로 표현하므로, 학습자가 산출한 텍스트를 분석하여 의미 구성 능력을 진단하는 데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바는 학습자의 의미 구성 능력이다. 여기에서 의미 구성 능력이란 국어교육에서 전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 생성과 내용 조직 능력을 의미한다. 내용의 생성과 조직 과정은 학습자가 텍스트를 생산하는 실제 사고 과정에서는 동시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를 통칭하여 의미 구성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정보 전달 텍스트와 설득 텍스트 중 수사학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 RST를 적용하는 데 적합한 설득 텍스트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국어과에서는 학습자의 쓰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쓰기 능력을 구성하는 구인을 근거로 그에 맞는 평가 기준과 평가 척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사용해 왔다. 더욱이 이러한 평가 방법을 체크리스트와 같은 평가 도구와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학습자들에게 개별 점수나 상대적 등급만 제공하는 데 그치는 면이 있다. 즉, 이러한 방식은 개별 학습자들에게 그들이 산출한 텍스트를 근거로 어떤 부분에서 취약하고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제약이 크다.<sup>1)</sup> 물론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채

1) 〈표 1〉은 일반적인 쓰기 평가 기준과 척도의 한 예이다. 이러한 쓰기 기준에서 '단락 구조의 적절성', '글 구성의 적합성', '글 구성의 통일성'에 대해 개별 채점자는 나름의 평가 기준으로 5점 척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평정할 수 있지만, 학생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글을 구성하는 차원에서 어떤 면이 부족한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표 1〉쓰기 평가 기준 중 '글의 구성 범주의 예(최미숙 외, 2016: 295)

글의 구성 범주	아주 좋음	좋음	보통임	나쁨	아주 나쁨
단락 구조의 적절성	5	4	3	2	1
글 구성의 적합성	5	4	3	2	1
글 구성의 통일성	5	4	3	2	1

점자 간 사전 협의 절차를 갖고 평가 결과에 대한 통계적 보정을 통해 채점자 간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을 실행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작업은 평가의 신뢰도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정작 텍스트 의미 구성 차원에서 학습자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와 관련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학습자의 의미 구성 능력을 상세하게 진단하여 구체적인 피드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 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선영 외(2016)에서는 텍스트 분석에 사용하는 RST의 의미관계가 학습자의 어떤 의미 구성 능력을 점검하는 데 유용한지, 즉 RST를 활용한 의미 구성 능력 진단 지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진단 도구의 형식을 탐색하고자 한다. 즉, 학습자가 산출한 텍스트의 질적 분석 자체보다 학습자의 의미 구성 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 진단 도구의 형식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탐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이다. 학습자가 직접 산출한 텍스트보다는 문장 단위로 배열된 하나의 텍스트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개별 문장을 선택, 배열, 분류, 삭제, 추가하는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보통의 작문 과제처럼 학습자가 주제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직접 쓰도록 하면, RST를 활용하여 개인별 질적 분석은 가능하지만 학습자의 산출물에 대한 각각의 진단 지점에 대한 변인 통제가 불가하여 표준화된 진단 도구를 만들 수 없다. 그러므로 반고정식 텍스트를 제시하고 핵심 문장을 선별하고, 핵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구별하고, 문장 간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여 논리적으로 배열하고, 개별 문장을 삭제, 추가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해당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진단 도구 개발에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서 II장에서는 RST를 학습자 텍스트 분석에 적용한 선행 연구를 살피고 RST가 학습자의 의미 구성 진단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진단 도구의 형식을 탐색하기 위한 실증적 방법을 설명하고, IV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의미 구성 능력

을 진단하는 데 가장 적합한 형식을 찾는 의사 결정적 논의를 하고자 한다.

## II. 선행 연구 검토

본 연구의 진단 도구는 Mann & Thompson(1988)의 수사구조이론(RST)을 바탕으로 한다. RST를 활용한 국내 연구는 크게 국어학과 국어교육 연구의 두 방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국어학 관련 연구로는 RST를 소개하고 이를 적용하여 하나의 텍스트 유형 혹은 둘 이상의 텍스트 유형을 비교하고 의미관계의 특성이 텍스트 유형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밝히는 연구(남기택·최승기, 2013; 서성교, 2003; 윤석민, 1994; 윤신원, 2013; 윤신원·이지양, 2013; 이원표, 2005, 2012; 이해윤·전수은, 2007)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들은 서사, 시, 논증, 설명과 같은 텍스트 유형들에 각각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의미관계들이 있으며 텍스트 유형에 따라 출현되는 의미 관계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석 사례를 통해 보여 주었다. 또한 텍스트 유형에 따라 상위 단위들이 연결되는 방식이나 의미관계의 차이가 나타남을 밝혔다.

국어교육 연구에서 RST를 활용한 연구는 텍스트 요약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김재봉, 1996, 1999)와 학습자 텍스트를 분석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이선영, 2015; 이선영 외, 2016)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RST로 텍스트를 분석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적 관점에서 수준별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 전략 등을 찾아내려 했다. 이선영 외(2016)는 RST를 학습자 텍스트 분석에 적용한 첫 사례로서 완성도가 높거나 전범인 텍스트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던 관습에서 벗어나 학습자 텍스트를 의미 구성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물론 이전에도 학습자의 텍스트를 논증 모형이나 논증 도식을 활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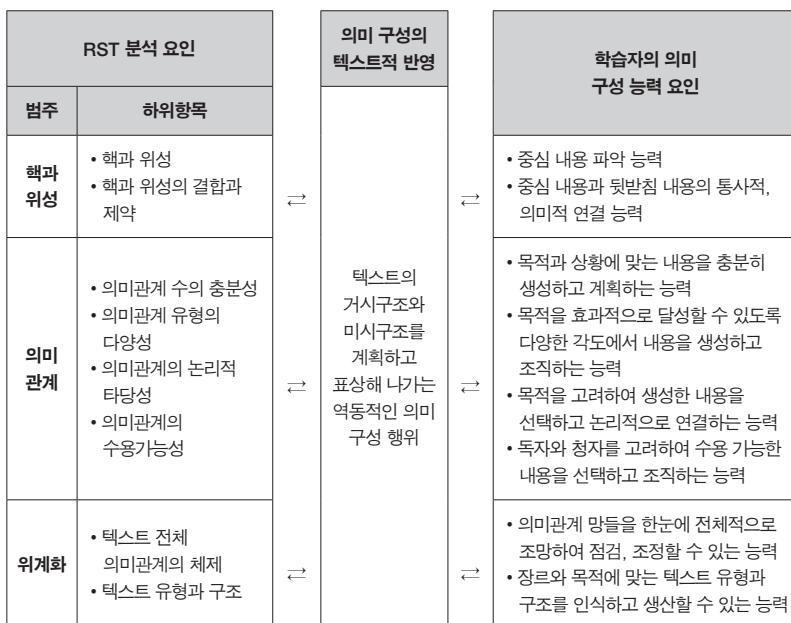
여 분석한 연구들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툴민의 논증 모형을 활용하였다. 툴민은 일상생활의 논증을 비형식 논리학적 접근으로 논리학과 수사학의 간극을 메우는 합리적인 방식을 제시하였지만 논증의 요소에 집중한 나머지 문단 이상의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기존 연구(고정은, 2008; 김동희·김용진, 2015; 서정혁, 2008)들이 분석한 사례가 문단 차원을 넘지 못한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툴민의 논증 모형은 논증 요소의 분석이라는 그 나름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의 텍스트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서영진, 2014; 송지언, 2015; 이정연, 2015). 또한 ‘보장(warrant)’의 개념은 사회문화적 차원의 관습을 포함하므로 학습자의 텍스트에서 직접 확인되기보다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학습자가 텍스트를 산출할 때 보장과 같은 논증 요소는 숨기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툴민의 논증 모형으로 학습자가 의미를 구성하는 사고 과정을 진단하는 데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이와 더불어 민병곤(2004)에서 소개한 킨포인트너의 논증 도식은 21개의 하위 분류로 학습자의 텍스트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수준을 드러내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 학생의 수준에 따라 더 다양한 논증 도식이 사용되었으며 논제에 따라 사용되는 논증 도식의 양상이 달랐다는 연구들(권희경, 2008; 여정민, 2011; 진영란, 2005)은 학습자의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 역시 학습자의 텍스트에서 논증 도식의 빈도와 유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의미 구성의 관점에서 학습자의 글을 진단하여 실제적인 의미 구성 능력을 신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차원으로 전개되지는 못하였다.

학습자 텍스트 분석에 RST를 적용하게 되면 텍스트의 길이에 상관없이 문장 차원을 넘어선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중심 내용과 뒷받침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핵과 위성으로 분리함으로써 학습자가 중심 의미를 구성하고 이를 세부적인 의미관계로 엮어가는 과정을 분석하는 데도 유용하다. 그리고 텍스트의 의미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텍스트의 위계

적 구조를 미시적, 거시적 차원에서 조망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텍스트 분석 및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RST의 출발점이 텍스트 생산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텍스트 분석 시에 적용되는 핵심이 텍스트를 생산하는 이의 목적과 의도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이선영 외(2016)에서는 RST를 학습자 텍스트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RST의 분석 요소와 학습자의 의미 구성 능력 요인의 관련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RST와 의미 구성 능력 요인의 관계(이선영 외, 2016: 301)

핵과 위성의 관계는 학습자가 구성한 중심 내용과 뒷받침 내용을 구분하고 이를 통사, 의미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와 관련된다. 그리고 학습자가 생산한 텍스트의 의미관계의 수와 유형, 그리고 의미관계의 타당성과 수용가능성에 대한 분석은 학습자가 목적과 상황을 고려

하여 내용을 생성하고 계획하며 조직하는지를 보여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RST는 전체 텍스트의 위계화 구조를 시각화하여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전체 텍스트의 의미망들을 조망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RST가 지닌 장점에도 불구하고 학습자 텍스트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게 되면 여러 변수가 발생한다. 학습자의 의미 구성 능력의 수준 차가 존재하고 주제나 글쓰기 상황에 따라 학습자가 보이는 텍스트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해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의미 구성 능력을 일정한 조건에서 진단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III. 연구 방법

#### 1. 진단 도구 형식의 개발

##### 1) 진단 도구의 요건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RST는 핵과 위성의 관계, 의미관계의 양상, 텍스트의 위계화 양상을 중심으로 학습자 텍스트를 분석함으로써 학습자의 의미 구성 능력을 다양한 지점에서 진단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RST 분석이 교육적 맥락 속에서 그러한 진단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진단 도구의 형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즉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연구자나 교사가 다양한 학생들이 산출하는 다양한 텍스트를 대상으로 RST 분석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통제된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 한정된 반응을 텍스트 형태로 산출하도록 유도하고 그러한 한정된 범위의 텍스트에 대해 RST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진단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습자의

평소 언어 수행을 관찰하는 것만으로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평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 평가 도구’라는 것을 굳이 개발하는 이치와 같다.

그렇다면 RST를 활용한 의미 구성 능력 진단 도구는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 이는 진단 도구가 필요한 이유와 결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학습자의 의미 구성 능력’을 ‘RST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진단 도구가 필요한 것이라 본다면 다음 두 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 ㄱ. 학습자의 의미 구성 능력을 타당하게 진단할 수 있는가?
- ㄴ. RST를 활용하기에 적합한 형태의 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가?

이 중 ㄴ은 다시 자료 수집 과정에 대한 기준과 수집된 자료의 특성에 대한 기준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

- ㄴ-1. 자료의 수집 과정이 효과적이고 수월한가?
- ㄴ-2. 수집된 자료의 특성이 RST 분석에 적합한가?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이 설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의미 구성 능력 진단 도구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즉 ㄱ은 ‘진단의 타당성’에, ㄴ-1은 ‘시행의 용이성’에, ㄴ-2는 ‘자료의 적합성’에 각각 대응된다.

#### 가) 진단의 타당성

여기서 타당성이란 일반적인 평가 이론에서 말하는 ‘타당도(validity)’와 연관되는 개념으로서, 진단 도구가 진단하고자 하는 능력을 제대로 진단 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때 진단 도구의 자료 수집 방식에 따라 학습자의 텍스트적 반응 양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특정한 진단 도구 형식에 따라 학습자 텍스트를 산출하여 RST 분석을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

가 학습자의 의미 구성 능력을 타당하게 진단해 낼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이 필요한데, 첫째, 진단 도구에 의해 수집된 학습자 텍스트를 통해 의미 구성 능력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가이고, 둘째는 각각의 의미 구성 능력별로 학습자들의 의미 구성 양상이 텍스트에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는가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을 구분하기 위해 전자를 ‘의미 구성 능력의 포괄성’으로, 후자를 ‘의미 구성 양상의 다양성’으로 부르고자 한다.

먼저 ‘의미 구성 능력의 포괄성’은 진단 도구를 통해 수집된 학습자 텍스트에 대해 RST 분석을 실시할 경우 의미 구성 능력을 진단하는 데 필요한 점검 요소들이 충분히 포함되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RST 분석을 통해 의미 구성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점검 요소는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크게 중심 내용을 설정하는 능력,<sup>2)</sup> 목적과 상황을 고려하여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는 능력, 텍스트의 전체 체제와 구조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미 구성 양상의 다양성’은 진단 도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각각의 의미 구성 능력 진단 요소에 대하여 학습자마다 최대한 다양한 의미 구성 양상이 나타나도록 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진단 도구를 통해 수집된 학습자 텍스트에 대해 의미 구성 능력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학습자들의 의미 구성 양상이 다양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미 있는 진단 결과를 산출하기 어렵다. 이는 일반적인 평가 문항이 지나치게 쉽거나 어려울 경우 변별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학습자의 수준을 제대로 파악해 내지 못하는 경우와 유사하다.

2) 이선영 외(2016: 301)에서는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하였지만, 이는 읽기 과정에서 텍스트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능력의 의미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파악’을 ‘설정’으로 바꾸었다. 여기서 ‘중심 내용의 설정’이란, 쓰기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생성한 정보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다양한 층위에서 중심 내용을 능동적으로 정하는 것을 뜻한다.

#### 나) 시행의 용이성

시행의 용이성은 RST 분석의 대상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뜻한다. 이는 다시 학습자의 과제 이해 측면과 과제 수행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과제 이해의 용이성'은 학습자들이 진단 도구에서 부과하는 과제의 지시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제 진술이 정확하고 명료할 필요가 있다.

'과제 수행의 용이성'은 진단 도구에 포함된 과제들은 진단 대상인 학습자의 수준에서 수행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즉 진단 도구가 제시하는 자료의 언어적 난도 및 문제 해결에 필요한 배경 지식의 정도가 진단 대상 학습자의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습자가 최상의 인지적 상태에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으려면 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아야 한다.

#### 다) 자료의 적합성

자료의 적합성은 진단 도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특성이 RST 분석에 잘 들어맞아야 함을 뜻한다. 이는 다시 RST 분석에 필요한 텍스트 길이의 적절성 측면과 RST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 가공의 용이성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텍스트 길이의 적절성'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RST의 분석 단위는 텍스트의 유형이나 연구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분석 단위를 어떻게 설정하더라도 진단 도구를 통해 분석할 자료에는 의미 구성 능력을 진단할 수 있을 만큼의 분석 단위가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진단 대상 학습자가 생산한 텍스트가 어느 정도의 길이를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텍스트가 지나치게 짧을 경우에는 분석 단위의 수도 감소하여 의미 구성 능력의 진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미관계의 수나 의미관계 층위의 깊이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텍스트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 경우 진단에

투입되는 시간에 비하여 진단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적정 텍스트 길이의 확보가 필요하다.<sup>3)</sup>

‘자료 가공의 용이성’은 진단 도구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단 과정의 전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한 것이다. 가령 진단 대상 글의 문장을 코드화하여 전산 입력해 두면 RST 분석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코드열이나 패턴을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진단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 2) 진단 도구 시안의 형식 분화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진단 도구의 요건 중 진단의 타당성 요건을 우선 고려하여 진단 도구 형식의 원형을 구안하였다. 왜냐하면 시행의 용이성이나 자료의 적합성과 같은 요건들은 실증적 판단 대상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반면, 진단의 타당성은 연구자들의 전문성에 의한 판단이 어느 정도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평가의 양호도에 대해 판단할 때 신뢰도나 변별도 등은 통계적 방법에 의해 산출된 지표에 의해 실증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반면 타당도의 경우 통계적 방법 외에 전문가에 의한 내용 타당도 판단이 가능한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문가적 관점에서 진단의 타당성 요건을 갖춘 진단 도구 형식의 원형은 어떤 방향으로 제작되어야 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진단 도구에 의해 드러나는 학생들의 과제 수행 과정이 실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의미 구성 과정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진단 도구를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 진단 도구 형식의 원형으로 채택한 것은 주어진 아이디어, 즉 내용들을 배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미 구성 과정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 중 중심 내용을 설정하고,

- 
- 3) 본 연구는 진단 도구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느 정도의 길이가 ‘적정 길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추후 진단 도구를 개발하고 검증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내용들 간의 특정 의미관계를 의식하며, 거시적 차원에서 내용들 간에 위계를 부여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텍스트에서 결국 절이나 문장의 배열을 통해서 구현된다. 이는 곁으로 드러난, 내용들의 배열을 살펴봄으로써 의미 구성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단 도구에서 부과할 과제로서 학습자들에게 9개의 문장을 제시하고 이를 글의 흐름에 맞게 배열하도록 하는 과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학습자에게 제시할 텍스트는 중학교 교과서에서 선정하였다. 이는 학생이 작성한 설득 텍스트<sup>4)</sup>로서 원문은 15개 문장이었으나, 연구진의 협의를 통해 9개 문장으로 축소하였다.<sup>5)</sup> 실험에 사용한 9개의 문장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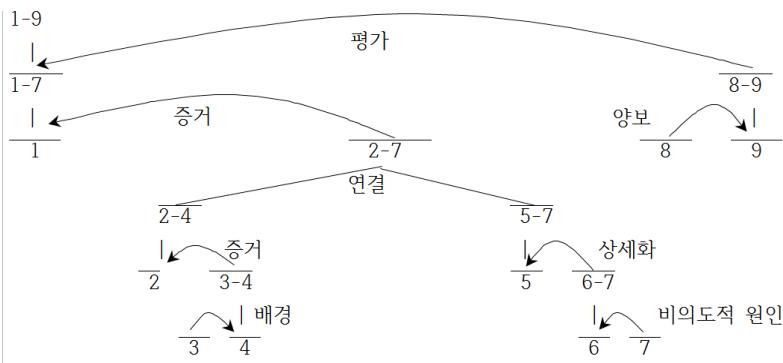
1. 현대인의 필수품인 휴대 전화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
2. 휴대 전화 때문에 함께 있는 사람과 집중하여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
3. 실제로 상대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아 대화가 끊기는 경험을 한 사람이 75%나 된다.
4. 이는 휴대 전화가 함께 마주보고 있는 사람과의 진지한 대화를 방해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5. 또한 휴대 전화 때문에 직접적인 만남의 기회가 줄어서 사람 사이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
6. 예를 들어, 휴대 전화로 게임, 음악, 영화 감상을 하면 혼자서도 심심하지 않게 지낼 수 있다.
7. 그러면 사람들은 애써 친구를 만날 필요가 없게 되어 인간관계의 폭이 점점 좁아지게 될 것이다.
8. 물론 휴대 전화를 통해 멀리 있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어서 오히려 인간관계

- 
- 4) 『중학교 국어⑤(천재교육)』의 5단원 ‘토론과 주장’에 제시된 ‘휴대 전화는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라는 제목의 글로서, 김주현 학생이 작성한 것이다.
  - 5) 연구진의 논의를 거쳐서 내용의 논리 전개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의미관계 유형이 중복되거나 지엽적인 부분을 제거하였다.

가 다양해질 수도 있다.

9. 하지만 직접적인 만남이 없는 기계를 통한 소통 방식으로는 친밀한 인간관계를 만들기 어렵다.

교과서 수록 텍스트의 흐름에 맞게 9개의 문장을 위 번호 순서대로 배열한 텍스트를 원 텍스트로 상정하고, 이에 대해 RST 분석을 한 결과, 평가 1, 증거 2, 양보 1, 상세화 1, 배경 1, 연결 1, 비의도적 원인 1개로 7종류 8개의 의미관계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원 텍스트에 대한 RST 분석 결과

의미 구성 과정은 실시간으로 점검과 조정이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그렇다면 학습자들도 자신의 내용 배열을 점검하고 그에 대해 손쉽게 조정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종래의 문장 배열 과제가 주로 지필 문항 형태를 취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미 구성의 역동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제시되는 문장을 접착식 메모지에 인쇄하여 제공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의미 구성 과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접착식 메모지에 제시된 문장들을 배열하는 방식을 진단 도구 형식의 원형으로 삼고 이를 A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글쓰기의 의미 구성 과

정은 앞서 설명한 기본적 과정 외의 다양한 사고 과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형 외에 몇 가지 형식을 구안하고, 각 형식이 앞서 살펴본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의미 구성 과정에는 주어진 정보나 이미 수집한 정보 중 불필요한 것은 버리고 필요한 것만 취하는 선택의 과정도 포함되며, 더 필요한 정보를 찾거나 생성하는 과정도 존재한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을 배열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어진 문장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삭제할 수 있고 필요한 문장을 추가할 수 있는 형식을 통해 진단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형식을 B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글쓰기의 과정이 회귀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필사나 타이핑과 같이 언어 형식을 실체화하는 ‘표현하기’ 단계에서도 의미 구성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두 가지 형식 유형을 추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원형인 A 유형에 원고지 작성 과정을 추가한 유형을 C 유형으로, B 유형에 원고지 작성 과정을 추가한 유형을 D 유형으로 각각 설정하였다.

지금까지 설명한 네 가지 진단 도구 형식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최적의 진단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 본 진단 도구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유형의 진단 도구 시안을 학생들에게 실제로 적용해 봄으로써 각 유형이 진단 도구의 요건 측면에서 어떤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하였다.

<표 2> RST를 활용한 의미 구성 능력 진단 도구 유형

유형	과제	형태
A	집착식 메모지에 제시된 문장의 순서를 글의 흐름에 맞게 배열만 함.	

B	접착식 메모지에 제시된 문장의 순서를 글의 흐름에 맞게 배열하되 삭제하고 싶은 문장을 삭제하거나 보충하고 싶은 문장을 접착식 메모지에 써서 추가함.	
C	접착식 메모지에 제시된 문장의 순서를 글의 흐름에 맞게 배열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원결된 글로 원고지에 작성함.	
D	접착식 메모지에 제시된 문장의 순서를 글의 흐름에 맞게 배열한 후에 내용을 삭제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보충하면서 완결된 글을 원고지에 작성함.	

## 2.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서울, 경기, 대전, 울산 소재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습자 각 40명을 대상으로 네 가지 진단 도구 형식에 따른 의미 구성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네 가지 진단 도구의 검사 방식을 영상으로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초, 중, 고 교사가 시행 방식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2016년 5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의 140명을 대상으로 A-D 유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6월에는 실험에 참여한 교사를 대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인 학생들의 반응과 교사들의 의견을 수합하고자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실험 전·중·후의 학습자 반응, 지침을 줄 때 혼란스러운 점, 진단 도구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등이었다. 네 가지 진단 도구 형식에 따른 학교급별 학생 현황을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A 유형과 B 유형은 최대 허용 시간을 20분으로 하였으며, C 유형과 D 유형은 40분 이내로 하고, 500자 내외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표 3〉 진단 도구 유형별 연구 참여자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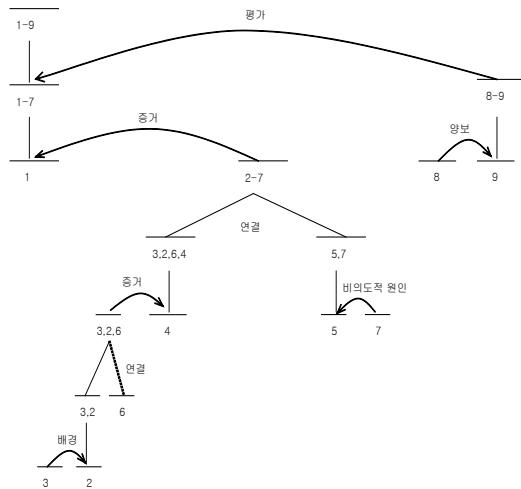
학년	유형 A	유형 B	유형 C	유형 D	합계
초6		인천 ○○초등학교			
	5	5	5	5	40
		울산 ○○초등학교			
	5	5	5	5	
중2		서울 ○○중학교			
	5	5	5	5	40
		경기 ○○중학교			
	5	5	5	5	
고1		서울 ○○ 고등학교			
	5	5	5	5	40
		대전 ○○ 고등학교			
	5	5	5	5	
합계	30	30	30	30	120

## IV.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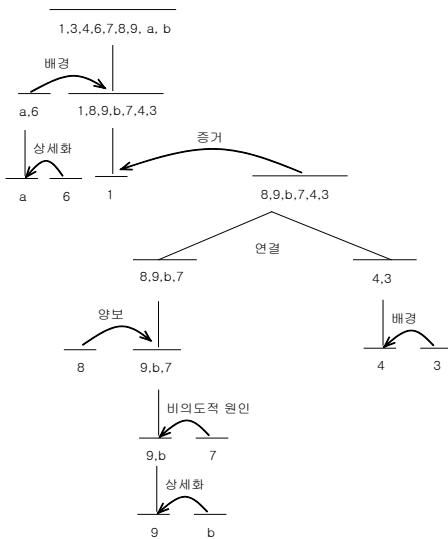
각 진단 도구 형식의 장단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Ⅲ장 1절에서 설정하였던 진단 도구의 요건을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즉 각 진단 도구 형식을 적용한 결과, 진단의 타당성, 시행의 용이성, 자료의 적합성이라는 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 최적의 진단 도구 형식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 1. 진단의 타당성 측면

‘진단의 타당성 측면’을 기준으로 학생들의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의미 구성 능력을 진단할 수 있는 3가지 요인이 모든 진단 도구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각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확인된 네 유형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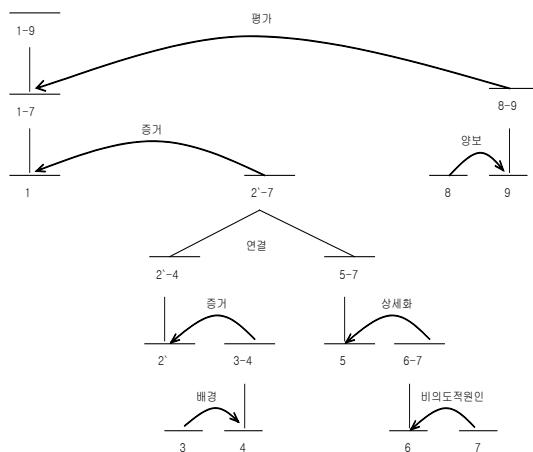


A 유형(중학생)<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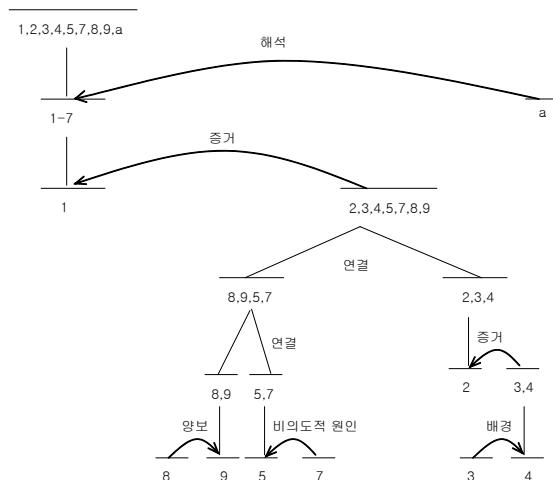


B 유형(중학생)

- 6) 2, 3, 4번 문장이 대면 상황에 해당하는 내용임에 비해 6번 문장은 비대면 상황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말하면 6번 문장은 해당 위치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특성을 표시하기 위해 6번 문장 위의 수직선을 점선으로 표기하였다.



C 유형(고등학생)



D 유형(초등학생)

〈그림 4〉 진단 도구 유형별 RST 분석 결과의 예

위에서 언급했듯이, RST로 포착할 수 있는 의미 구성 능력 요인의 하나인 ‘중심 내용을 설정하는 능력 요인’은 핵과 위성의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진단 도구의 각 유형에 해당하는 도식을 보면,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주

제인 1번 문장을 핵으로 설정하고 핵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을 위성으로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양보 관계의 핵에 해당하는 9번 문장과 배경 관계의 핵에 해당하는 4번 문장 등과 같이 학습자들이 핵으로 설정한 문장이 모든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각 진단 도구의 형식은 학습자의 중심 내용 설정 능력을 진단하는 데 적합한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목적과 상황을 고려하여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는 능력도 모든 유형에서 진단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B 유형은 A 유형에 덧붙여 주어진 문장 중 불필요다고 생각되는 것을 삭제할 수 있고 필요한 문장을 추가하는 유형이었는데, 예상한 대로 학습자들은 삭제와 추가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능동적인 태도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였다. 특히 삭제하거나 추가한 문장 단위의 개수는 1개에서 6개로 나타나 학습자들의 의도와 능력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된 텍스트가 생산되었다.

B 유형은 2번, 5번 문장이 삭제되고 a, b문장이 추가<sup>7)</sup>되어 재구성된 텍스트의 도식이다. 추가된 a문장은 텍스트의 전체 주제에 대한 배경 관계로, b문장은 미시적 내용을 더 자세하게 제시하는 상세화 관계로 구성되었다. 2번, 5번 문장이 삭제되었지만 비대면 상황과 대면 상황에 대한 내용이 구분되도록 의미를 구성하였으며, 텍스트의 중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이 배경 관계로 추가되어 중심 내용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한편, 원고지 작성 과정을 추가한 C, D 유형의 경우, 주어진 내용을 자유롭게 변형하여 텍스트를 재생산하는 폭이 기대한 바와 같이 크지는 않았지만 목적과 독자를 고려한 의미 구성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C 유형에서는 부사어를 추가<sup>8)</sup>하여 독자에게 좀 더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 
- 7) 추가된 2개의 문장은 다음과 같다. a. 휴대 전화는 지금 현대인의 필수품이다. b. 군이 서로 만나지 않고도 휴대 전화를 이용해 서로의 필요한 이야기를 한다.
  - 8) 2번 문장에 부사어 '대부분'을 추가하여, '대부분 휴대 전화 때문에 함께 있는 사람과 집중하여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로 수정하였다.

텍스트가 많이 산출되었다. D 유형을 보면 6번 문장이 삭제되고 a문장이 추가되었다. a문장은 텍스트의 전체 내용에 대한 해석 관계에 해당하는데, 해석 관계는 위성이 핵에 나타난 관점과 다른 관점으로 핵을 평가하는 의미관계이다. 즉 a문장은 핵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핵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주제에서 확장된 내용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삭제된 6번 문장은 5번 문장의 예시를 나타내는 위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삭제되어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다.

모든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성 중 또 다른 하나는, 양면 메시지 구성 능력이다. 양면 메시지 구성 능력은 양보 관계의 활용 양상으로 진단할 수 있다. 양보 관계는 앞부분에서 필자의 주장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 동조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인 후 뒷부분에서 필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의미를 구성하여 필자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활용된다. 특히 논증 텍스트에서 사용되는 양보 관계는 필자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을 요구하며 설득 효과를 높인다. 이와 같이 상황과 목적에 적합한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는 능력은 모든 진단 도구의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

셋째, 텍스트의 전체 체제와 구조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능력은 크게 주제문 배치와 의미 단락 구분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학습자들이 구성한 주제문의 위치를 살펴보면 대부분 주제문을 텍스트 앞부분에 배치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주제문에 뒤따르게 하는 두괄식 구성이 나타났다. 의미 단락 구분에 있어서는 주어진 텍스트의 내용 중 대면 상황과 비대면 상황의 거시적 의미 단락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학습자와 그렇지 못한 학습자들이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또한 양면 메시지 구성을 잘한 학습자는 거시적 의미 단락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능력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

9) 추가된 문장은 'a. 그러므로 휴대 전화 사용을 줄여야 한다.'로, 텍스트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다.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진단의 타당성 측면에서 진단 도구를 살펴 결과 A, B, C, D 유형 모두 학습자의 의미 구성 능력을 포착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sup>10)</sup>

## 2. 시행의 용이성 측면

이 기준에서는 학습자의 과제 이해와 수행 방식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앞서 밝힌 대로 본 연구는 학습자들의 텍스트 의미 구성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만 하면 하나의 텍스트를 완성할 수 있도록 주어진 자료를 배열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이 과제를 수행하기에 앞서 국어 교사가 과제 수행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런 절차를 포함했기 때문에 과제를 이해하지 못하여 텍스트 구성을 포기하거나 완성하지 못한 학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수행했던 교사들은 C와 D 유형에 포함됐던 ‘원고지로 옮겨 쓰는 과정’이 의도대로 수행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교사 인터뷰 진술의 일부이다.

이○○ 초등학교 교사: 문장을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항목에서 애들이 새로운 문장을 쓴다거나 삭제를 하는 것에 어색하게 생각을 했고, 있는 순서를 배열하는 A 유형 같은 경우에는 질문 없이 잘 했는데요, 문장을 삭제하라고 했을 때는 애들이 쉽게 삭제를 잘 못했고 추가하는 것도 쉽게 추가를 잘 못했습니다.

박○○ 고등학교 교사: 저도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보는 거랑 쓰게 되면 아무래도 문장이 끊어져 있는데 그냥 연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안 쓰던 접속어를 사이에 넣어서 쓸 수 있고 좀 더 매끄럽게. 쓰다 보면 하게 되니

10) A 유형의 경우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의미 구성 능력의 세 가지 범주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나, 각 범주 내에서 내용 생성과 관련된 요소를 진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V장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까 그런 점검이 이루어져서 자기 식으로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차라리 그냥 배열을 할 때보다 성의가 없어지고.

앞서 3장에서 진술했듯이, C 유형과 D 유형은 공통적으로 원고지를 활용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정보를 글로 표현되는 과정에서 의미를 재구성할 것임을 가정한 형식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학생들이 원고지에 옮기는 내용이 원고지를 제공하지 않은 유형(A, B 유형)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C, D 유형에서 정보 간의 의미관계를 파악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텍스트 내용 변형을 허용하였음에도 A, B 유형의 반응과 구분되는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C, D 유형이 학습자들에게 과제 수행의 부담을 주는 유형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료를 원고지에 그대로 베껴 쓰는 경향이 있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 교사들 역시 원고지 작성 과정을 추가한 C, D 유형보다 B 유형이 유용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는 실제 작문 과정을 구현하고자 했던 C, D 유형이 과제 산출 차원에서 B 유형과 차별되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현장 교사 인터뷰 내용의 일부이다.

이○○ 초등학교 교사: 애들이 가장 쉽게 했던 것은 A 유형이 가장 쉽게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문장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들도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지○○ 중학교 교사: 진단 도구로서는 A 유형의 경우는 실은 다 달랐지만, 아이들이 찍거나, 그냥 맞춰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B 유형의 경우가 가장 아이들의 수준차가 가장 확연히 드러나면서 그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되고요. C나 D 유형의 경우, 좀 더 D 유형의 경우도 글쓰기에서 굉장히 유용한 자료인데, 그것을 진단 도구로 하려면 다른 좀 더 주의점만 있으면 좋은 도구가 되

지 않을까 합니다.

한○○ 고등학교 교사: 저는 B 유형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실제로 써 보고 하는 것은 당연히 좋지만, 사실은 그것도 순서를 보고 다시 옮겨 쓰는 거잖아요. 옮겨 쓰기 전에 구성하는 간단하게 수업 현장에서 하기에는. 또는 순서와 앞 뒤 연결 이런 것들을 해보고 빼고 추가하는 이런 내용들을 해보면은 되게 간단하면서도 좋은 어떤 어떤 교육 자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와 같이 현장 교사들은 학습자의 의미 구성 능력을 진단하는 진단 도구 유형으로 B 유형을 선호하는 경향을 드러냈다. 현장 적용을 염두에 둔 교사들은 이 유형이 학습자들에게 내용을 구성할 쓰기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실제 쓰기 상황이 주는 원고지 작성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3. 자료의 적합성 측면

진단 도구 형식의 네 가지 유형 중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텍스트를 구성하는 유형은 텍스트 길이가 비교적 일정하게 확보되는 장점이 있다. 반면 추가나 삭제를 허용하는 유형은 이론상 극단적으로 짧아질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길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도 과제를 수행하는 시간이나 정보의 추가 및 삭제 범위를 통제함으로써 텍스트 길이의 적절성을 확보할 수 있다.<sup>11)</sup> 이런 측면에서 보면 네 유형 모두 학습자의 의미 구성 결과를 확보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학습자의 텍스트를 코드화하는 데에는 제한된 문장으로만 과제를

---

11) 실제 글쓰기 과정에서는 추가나 삭제의 허용 범위가 없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글쓰기 과정의 경우도 시간이나 지면의 제약 등이 있기 때문에 추가나 삭제가 무한정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수행하는 A, C 유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B와 D 유형의 경우 추가된 문장을 일일이 별도 코드로 입력해야 하고 그 부분을 진단자의 질적 판단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의 추가 및 삭제의 허용 범위는 추후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교사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들 모두 검사지에서 요구한 '내용 추가 및 삭제'에 대한 지시 사항을 혼란스러워하였음을 파악하였다. 초등학생들은 기존 텍스트에서 문장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라는 지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여 질문하는 경우가 있고, 중, 고등학생들은 추가 및 삭제의 허용 범위에 대해 질문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은 이에 대한 교사 인터뷰 내용의 일부이다.

조○○ 초등학교 교사: 네.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추가 내용을 적거나 아니면 삭제를 하는 것이었는데 추가 내용을 하는 것은 아이들 중에 한명만 추가를 했고 나머지는 다 삭제만 했더라고요. 그게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해서 삭제를 했다 기보다 추가 또는 삭제의 압박을 받았는데, 추가의 부담을 느끼니 삭제 쪽으로 돌아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 중학교 교사: ...학생들이 그런 걸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몇 개까지 벼릴 수 있어요? 아니면, 한 문장을 꼭 만들어야 해요? 두 문장을 만들면 안 되나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요. C와 D를 한 친구들은 원고지 사용법을 많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거 문단 나둬야해요? 원고지 쓰기 방법 지켜야 돼요?

박○○ 고등학교 교사: 그리고 질문이 생각보다 좀 많았어요. 중간에 말을 넣을 건데 어떤 말을 넣느냐, 삭제하고 싶은데 빼도 되는 거냐, 중간에 문장 중에서 단어 하나만 지워도 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꽤 있었던 것 같구요. 그런 반응? 맨 처음에 왜 이거 해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원고지에 왜 써야하죠, 이런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상의 반응들은 과제 시행의 용이성과 자료의 적합성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학습자들의 의미 구성 능력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습자들이 과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그리고 학습들의 현재 능력이 과제를 통해 측정될 수 있도록 타당한 검사지를 개발하고, 동시에 진단에 필요한 텍스트의 양과 질을 담보할 방안을 구안해야 한다.<sup>12)</sup>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A, B, C, D 각 유형의 적합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4〉 진단 도구 형식의 적합성 판단 결과

기준 유형	진단의 타당성		시행의 용이성		자료의 적합성	
	의미 구성 능력의 포괄성	의미 구성 양상의 다양성	과제 이해의 용이성	과제 수행의 용이성	텍스트 길이의 적절성	자료 가공의 용이성
A	✓	✓	✓	✓	✓	✓
B	✓	✓	✓	✓	✓	
C	✓	✓			✓	✓
D	✓	✓			✓	

위 표에 제시한 체크(✓) 표시는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거나 적합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유형만 적합하고 다른 유형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학습자의 의미 구성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적합성을 분석한 결과, A와 B 유형이 모든 기준에 적합성을 지니는 것으로 탐색되었다. 다만, B 유형의 경

12) 익명의 심사자의 지적대로, 연구자들이 분석한 결과의 적합성을 담보할 추가적인 방법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진단 도구의 형식적 탐색에 한정한 것이므로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 문제는 추후 진단 도구를 정교화하는 작업을 통해 확보할 예정임을 밝힌다.

우, 문장을 추가할 수 있는 자유 권한을 부여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A 유형 보다 문장의 코드화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 C와 D 유형은 학생들이 의도된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볼 때 시행 및 자료 가공의 용이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수사구조이론(RST)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텍스트 의미 구성 능력을 진단할 수 있다고 보고,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성이 강한 설득 텍스트를 대상으로 학습자의 의미 구성 능력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의 형식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진단 도구 개발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네 가지 형식의 적합성을 초, 중, 고등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여 확인해 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진단의 타당성’ 측면에서 네 가지 진단 도구의 형식을 검토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학습자들의 중심 내용 설정 능력, 목적과 상황을 고려한 내용 생성 및 조직 능력, 텍스트의 전체 체계와 구조 조망 능력을 진단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학습자들이 주제문을 핵으로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문장을 설정한 것을 모든 유형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목적과 상황을 고려하여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학습자들이 핵과 위성의 의미관계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양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모든 유형에서 확인 가능하였다. 다만, 주어진 내용을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도록 원고지를 제시했던 C와 D 유형의 결과가 B 유형의 반응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행의 용이성’ 측면에서 네 가지 진단 도구의 형식을 검토한 결과, 원고지로 의미 구성 결과를 옮기는 방식을 포함한 C와 D 유형이 A와 B 유형에 비해 적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C와 D 유형은 학습자들에게 의미 구성의 조정 범위를 자유롭게 허용한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B 유형과 견줄만한 차별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점을 고려해 볼 때, 의미 구성 능력을 진단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데에 있어 실제 글 쓰기 과정을 형식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적합성’ 측면에서 네 가지 진단 도구의 유형을 검토한 결과, 텍스트 길이의 적절성 측면에서는 네 가지 유형 모두 일정 길이의 텍스트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자료 가공의 용이성 측면에서는 A와 C 유형이 B와 D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A와 B 유형이 C와 D 유형에 비해 진단 도구로서 우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선 A 유형은 학습자의 의미 구성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세 가지 지점을 확보하는 데 무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행의 용이성과 자료 가공의 용이성을 모두 가진다는 점에서 진단 도구로서 가장 우위를 점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A 유형은 주어진 문장만을 배열함으로써 나름대로 의미를 구성해야 하므로 학습자 스스로 내용을 얼마나 혹은 어떻게 생성했는가를 진단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이 점에서 볼 때, A 유형은 주로 내용 조직 능력을 진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B 유형은 학습자에게 주어진 정보 외에 별도로 정보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서 학습자의 의미 구성 능력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데 유리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유형은 학습자에게 부여한 텍스트 구성의 자유가 자료 가공의 용이성 차원에서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진단 도구에 포함될 과제를 설계할 때, 기존 정보의 삭제 및 새로운 정보의 추가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접착식 메모에 내용을 삭제하거나 추가

할 때 텍스트 판정이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삭제나 잉여적인 정보가 제시되지 않는 수준에서 학습자들이 과제를 수행하도록 보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학습자의 정보 선택의 범위를 설정한다면, 그 범위를 어느 정도로 제한할 것이냐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초, 중학교 교사들의 인터뷰에서는 학생들이 ‘내용 추가’보다는 ‘삭제’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경향을 과제 부담에 따른 회피적 선택이라고 보았다. 이는 진단 도구의 기능을 고려할 때, 내용 추가와 삭제에 대한 허용 범위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시행의 용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요인임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진단 도구의 형식을 탐색하기 위해 과제 자료를 한 가지 유형으로 한정하여 탐색했다는 점에서 과제 자료로서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동일한 수준의 여러 가지 자료를 개발하거나, 동일한 자료를 학생의 수준에 따라 변형하는 방안을 추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발판으로 추후 학습자의 의미 구성 능력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 개발 연구가 활발하게 개진되기를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17. 1. 31. 투고되었으며, 2017. 2. 14. 심사가 시작되어 2017. 3. 9.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고정은(2008), 「논증적 글쓰기 교육 방안 연구」, 『교육과학연구』 10(1), 97-113,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 권희경 외(2008), 「아동용 인과추론능력검사 개발 예비 연구」, 『교육심리연구』 22(2), 367-384, 한국교육심리학회.
- 김동희 · 김용진(2015), 「불민의 논증 모형을 활용한 과학 교과서의 논증 구조 분석」, 『교육연구』 63, 37-64,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김재봉(1996), 「수사구조이론을 활용한 요약 전략과 적용」, 『한국언어문학』 37, 25-40, 한국언어문학회.
- 김재봉(1999), 「텍스트 요약 전략에 대한 국어교육학적 연구」, 집문당.
- 남기택 · 최승기(2013), 「수사 구조 이론을 활용한 현대시 텍스트 분석: <진달래꽃>과 <님의 침묵>을 중심으로」, 『한어문교육』 28, 155-179,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 민병곤(2004), 「논증적 텍스트의 생산 과정에서 논증 도식의 운용 양상에 대한 분석 및 교육적 시사」, 『국어교육학연구』 18, 18, 국어교육학회.
- 서성교(2003), 「논증 텍스트와 비논증 텍스트의 수사 구조」, 『언어학』 11(4), 39-58, 대한언어학회.
- 서영진(2014), 「교과서 토론 담화 텍스트의 적합성 분석: 논증 구성 및 상호교섭 양상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49(2), 295-351, 국어교육학회.
- 서정혁(2008), 「비판적 읽기와 논술 교육」, 『독서연구』 20(2), 233-264, 한국독서학회.
- 송지언(2015), 「작문 교과서의 논설문 수록 양상과 개선 방안」, 『국어교육』 150, 295-328, 한국어교육학회.
- 여정민(2011), 「초등학생 토론에서 나타나는 인과 논증의 양상 연구: 실용 문제를 논제로 하는 소집단 토론 분석을 중심으로」,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석민(1994), 「RST와 국어의 텍스트 분석」, 『텍스트언어학』 1, 127-167, 한국텍스트언어학회.
- 윤신원(2013), 「아동용 설명 텍스트의 연령대별 수사 구조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신원 · 이지양(2013),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 교과서에 나타난 설명 텍스트의 담화 구조 특성」, 『독서연구』 29, 189-223, 한국독서학회.
- 이선영(2015), 「수사 구조 이론을 활용한 논증 텍스트 분석 방안」, 『작문연구』 25, 101-126, 한국작문학회.
- 이선영 외(2016), 「수사구조이론을 활용한 학습자의 의미 구성 능력 진단 가능성 탐색」, 『국어교육연구』 62, 273-308, 국어교육학회.
- 이원표(2005), 「신문 사설에서의 직접 인용: Bakhtin의 '대화성(dialogicality)' 관점에서의 분석」, 『담화와인지』 12(2), 117-151, 담화·인지언어학회.
- 이원표(2012), 「상품 정보 기사'의 언어학적 분석: 장르 분석과 비평적 담화 분석의 관점을 중심으로」, 『언어』 37(4), 949-993, 한국언어학회.

- 이정연(2015), 「설득적 쓰기와 연계한 설득적 말하기 교육 방안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3, 191-227,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이해윤·전수은(2007), 「텍스트 유형별 구조 비교 분석—수사 구조 이론을 기반으로」, 『텍스트언어학』 23, 231-254, 한국텍스트언어학회.
- 진영란(2005), 「6학년 논증 텍스트에 나타난 논증 도식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미숙 외(2016), 『국어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아카데미.
- Mann, W. C., & Thompson, S. A. (1988), "Rhetorical structure theory: Towards a functional theory of text organization," *Text* 8(3), 243-281.

## 〈부록〉

### ■ 학생 자료 예시 A유형

- ① 현대인의 필수품인 휴대 전화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
- ③ 실제로 상대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아 대화가 끊기는 경험을 한 사람이 75%나 된다.
- ② 휴대 전화 때문에 함께 있는 사람과 집중하여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
- ⑥ 예를 들어, 휴대 전화로 게임, 음악, 영화 감상을 하면 혼자서도 심심하지 않게 지낼 수 있다.
- ④ 이는 휴대 전화가 함께 마주보고 있는 사람과의 진지한 대화를 방해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또한 휴대 전화 때문에 직접적인 만남의 기회가 줄어서 사람 사이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
- ⑦ 그러면 사람들은 애써 친구를 만날 필요가 없게 되어 인간관계의 폭이 점점 좁아지게 될 것이다.
- ⑧ 물론 휴대 전화를 통해 멀리 있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어서 오히려 인간 관계가 다양해질 수도 있다.
- ⑨ 하지만 직접적인 만남이 없는 기계를 통한 소통 방식으로는 친밀한 인간 관계를 만들기 어렵다.

### ■ 학생 자료 예시 B유형

- a. 휴대 전화는 지금 현대인의 필수품이다.
- ⑥ 예를 들어, 휴대 전화로 게임, 음악, 영화 감상을 하면 혼자서도 심심하지 않게 지낼 수 있다.
- ① 현대인의 필수품인 휴대 전화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

- ⑧ 물론 휴대 전화를 통해 멀리 있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어서 오히려 인간 관계가 다양해질 수도 있다.
  - ⑨ 하지만 직접적인 만남이 없는 기계를 통한 소통 방식으로는 친밀한 인간 관계를 만들기 어렵다.
- b. 굳이 서로 만나지 않고도 휴대 전화를 이용해 서로의 필요한 이야기를 한다.
- ⑦ 그러면 사람들은 애써 친구를 만날 필요가 없게 되어 인간관계의 폭이 점점 좁아지게 될 것이다.
  - ④ 이는 휴대 전화가 함께 마주보고 있는 사람과의 진지한 대화를 방해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실제로 상대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아 대화가 끊기는 경험을 한 사람이 75%나 된다.

#### ■ 학생 자료 예시 C유형

- ① 현대인의 필수품인 휴대 전화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
- ② 대부분 휴대 전화 때문에 함께 있는 사람과 집중하여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
- ③ 실제로 상대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아 대화가 끊기는 경험을 한 사람이 75%나 된다.
- ④ 이는 휴대 전화가 함께 마주보고 있는 사람과의 진지한 대화를 방해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또한 휴대 전화 때문에 직접적인 만남의 기회가 줄어서 사람 사이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
- ⑥ 예를 들어, 휴대 전화로 게임, 음악, 영화 감상을 하면 혼자서도 심심하지 않게 지낼 수 있다.
- ⑦ 그러면 사람들은 애써 친구를 만날 필요가 없게 되어 인간관계의 폭이 점점 좁아지게 될 것이다.
- ⑧ 물론 휴대 전화를 통해 멀리 있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어서 오히려 인간

관계가 다양해질 수도 있다.

- ⑨ 하지만 직접적인 만남이 없는 기계를 통한 소통 방식으로는 친밀한 인간 관계를 만들기 어렵다.

■ 학생 자료 예시 D유형

- ① 현대인의 필수품인 휴대 전화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
- ⑧ 물론 휴대 전화를 통해 멀리 있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어서 오히려 인간 관계가 다양해질 수도 있다.
- ⑨ 하지만 직접적인 만남이 없는 기계를 통한 소통 방식으로는 친밀한 인간 관계를 만들기 어렵다.
- ⑤ 또한 휴대 전화 때문에 직접적인 만남의 기회가 줄어서 사람 사이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
- ⑦ 그러면 사람들은 애써 친구를 만날 필요가 없게 되어 인간관계의 폭이 점점 좁아지게 될 것이다.
- ② 휴대 전화 때문에 함께 있는 사람과 집중하여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
- ③ 실제로 상대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아 대화가 끊기는 경험을 한 사람이 75%나 된다.
- ④ 이는 휴대 전화가 함께 마주보고 있는 사람과의 진지한 대화를 방해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 a. 그러므로 휴대 전화 사용을 줄여야 한다.

## 수사구조이론(RST)을 활용한 의미 구성 능력 진단 도구의 형식 탐색

박재현 · 박종훈 · 윤신원 · 이선영 · 정민주

본 연구에서는 수사구조이론(RST: Rhetorical Structure Theory)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텍스트 의미 구성 능력을 진단할 수 있다고 보고,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성이 강한 설득 텍스트를 대상으로 학습자의 의미 구성 능력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의 형식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진단 도구 개발을 위한 기준과 그에 따른 네 가지 도구의 형식을 설정한 뒤, 초, 중, 고등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네 가지 진단 도구 형식을 적용해 봄으로써 그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진단의 타당성’ 측면에서는 네 가지 진단 도구의 형식 모두 학습자들의 중심 내용 설정 능력, 목적과 상황을 고려한 내용 생성 및 조직 능력, 텍스트의 전체 체제와 구조 조망 능력을 진단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주어진 내용을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C, D 유형의 결과가 B 유형의 반응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행의 용이성’ 측면에서는 원고지로 의미 구성 결과를 읽기는 방식을 포함한 C 유형과 D 유형이 A, B 유형에 비해 적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의미 구성 능력을 진단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글쓰기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진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적합성’ 측면에서는 A, C 유형이 B, D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료 가공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A, B 유형이 C, D 유형에 비해 진단 도구로서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최종 판단하였다.

핵심어 수사구조이론, 의미관계, 학습자 텍스트, 텍스트 분석, 진단 도구, 의미 구성 능력

## ABSTRACT

# Investigation on Diagnostic Tool Form of Meaning Construction Ability by Using RST

Park Jaehyun · Park Jonghoon · Yoon Shinwon ·  
Lee Sunyoung · Chung Minju

Thinking that learner's text meaning construction ability can be diagnosed by using RST (Rhetorical Structure Theory), this study intended to investigate a form of diagnostic tool for a learner's meaning construction ability on persuading text with text producer's strong intention. To this end, this study established the basis for development of diagnostic tools and the 4 tool forms and then, it applied the 4 diagnostic tool forms to learners at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 to verify the validity. As a result, from the aspect of 'validity of diagnosi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problem for the 4 diagnostic tool forms to diagnose grasping ability of main contents, contents creation and organization ability considering the purpose and situations, and the whole text system and structure grasping ability of all the learners. However, it appeared that the outcome of C and D patterns which could freely transform the given contents did not have a great difference from the reaction of B patterns. Next, from the aspect of 'easy execution', it was found that C and D patterns which included a method to move meaning construction results to manuscript papers had worse adequacy than A and B patterns. In other words, it was confirmed that inclusion of writing process in development of diagnostic tool for meaning construction ability would not have a direct influence on diagnosis. Finally, from the aspect of 'adequate data', it was believed that A, C patterns were relatively easier in data processing than B, D patterns. Taking above results together, it was finally judged that A, B patterns secured a dominant position over C, D patterns as a diagnostic tool.

**KEYWORDS** RST(Rhetorical Structure Theory), Relations, Learner Text, Text Analysis, Diagnostic Tool, Meaning Construction Ability